

축 사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수진사가 포교와 수행, 그리고 복지의 사회 환원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을 낙성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향하는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도량으로써, 포교와 수행 그리고 사회복지를 아우르며, 불교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책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生), 노(老), 병(病), 사(死)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관계의 불안은 물론 평온해야 할 가족문화에 커다란 상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의 여건은 우수한 복지시설과 마음에 평온을 주는 문화터전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소외되고,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많은 축복으로 전승관 건립을 회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의 도움과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고마운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인연의 동행자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눈 뜰 때 우리는 뭇 생명과 더

불어 행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행으로 옮긴 이번 불사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구현이며 보살행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총화종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불사를 이루어 내고 다시 이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기도정진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공덕을 나누는 것이요 남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낙성하는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주고, 의지할 곳 없는 이에게는 따뜻한 의지처가 될 수 있는 향기로운 도량으로 자리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치하를 드리며, 무량한 발전과 모든 분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4월 2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